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핍박당하는
교회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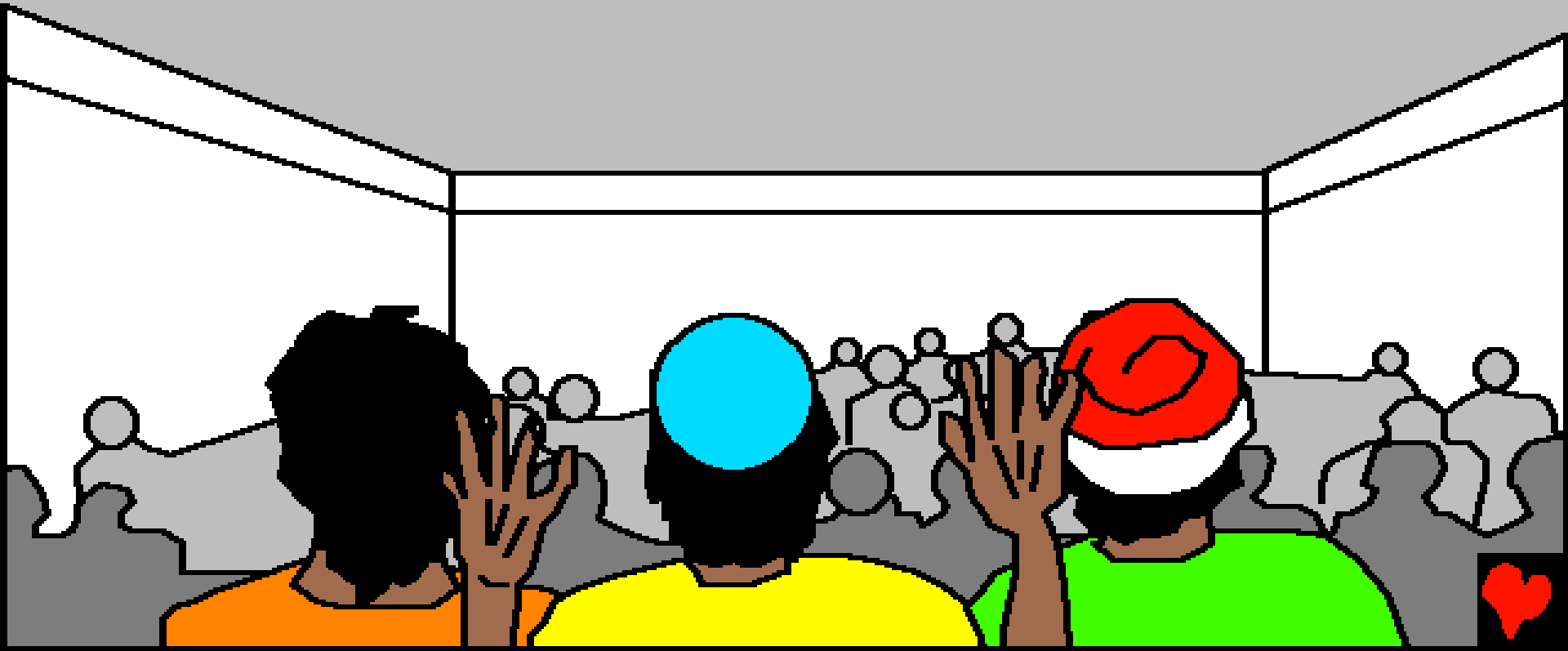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16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오십일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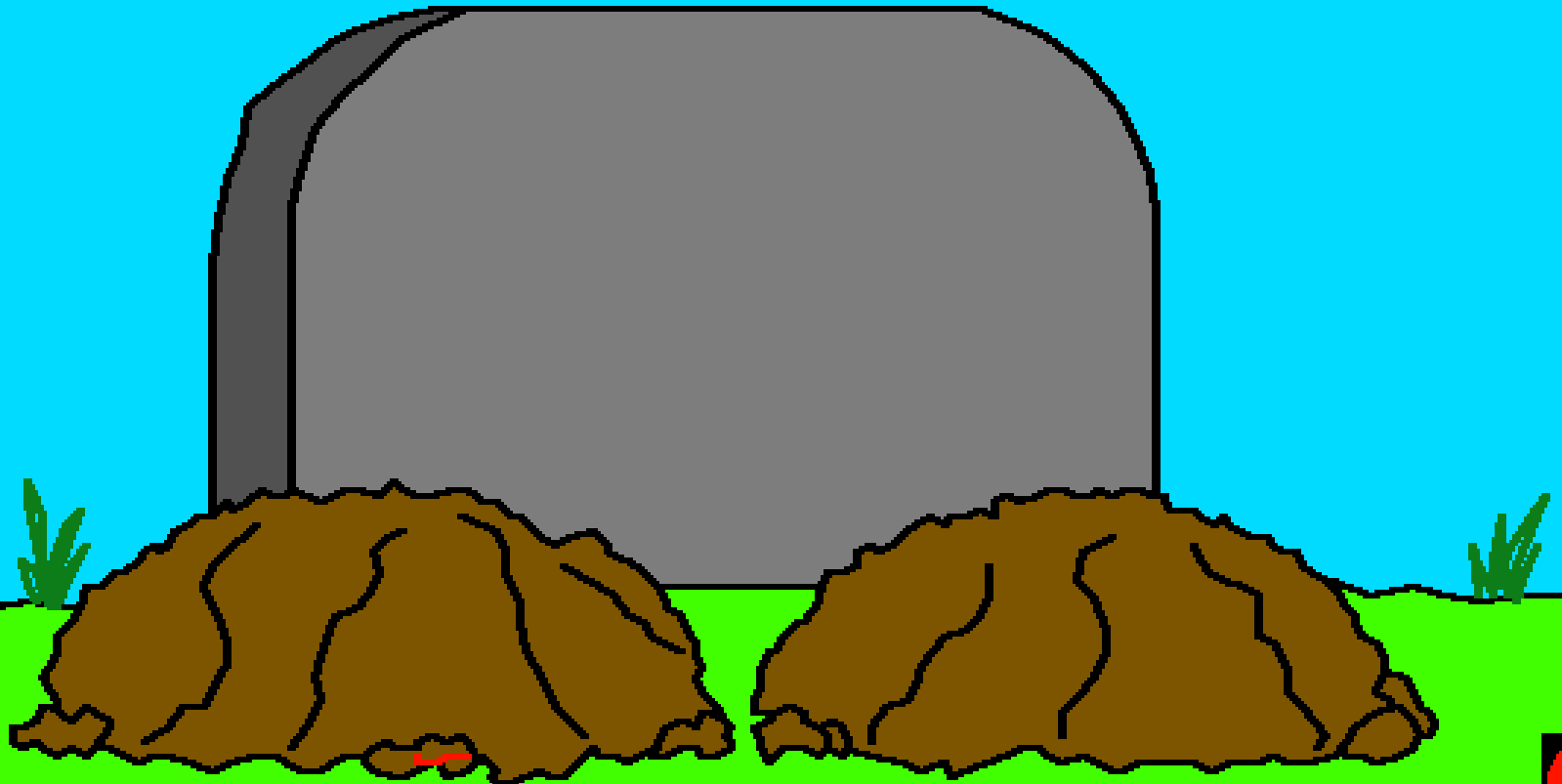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 주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속였어요.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하여 일부를 숨겨 놓았지요.



“왜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냐?”라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었어요.
이것은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쓰러져 숨을 거두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장사하였지요.



얼마 후에, 샵비라가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녀도 남편처럼 돈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장사되고 말았지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였지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었지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제사장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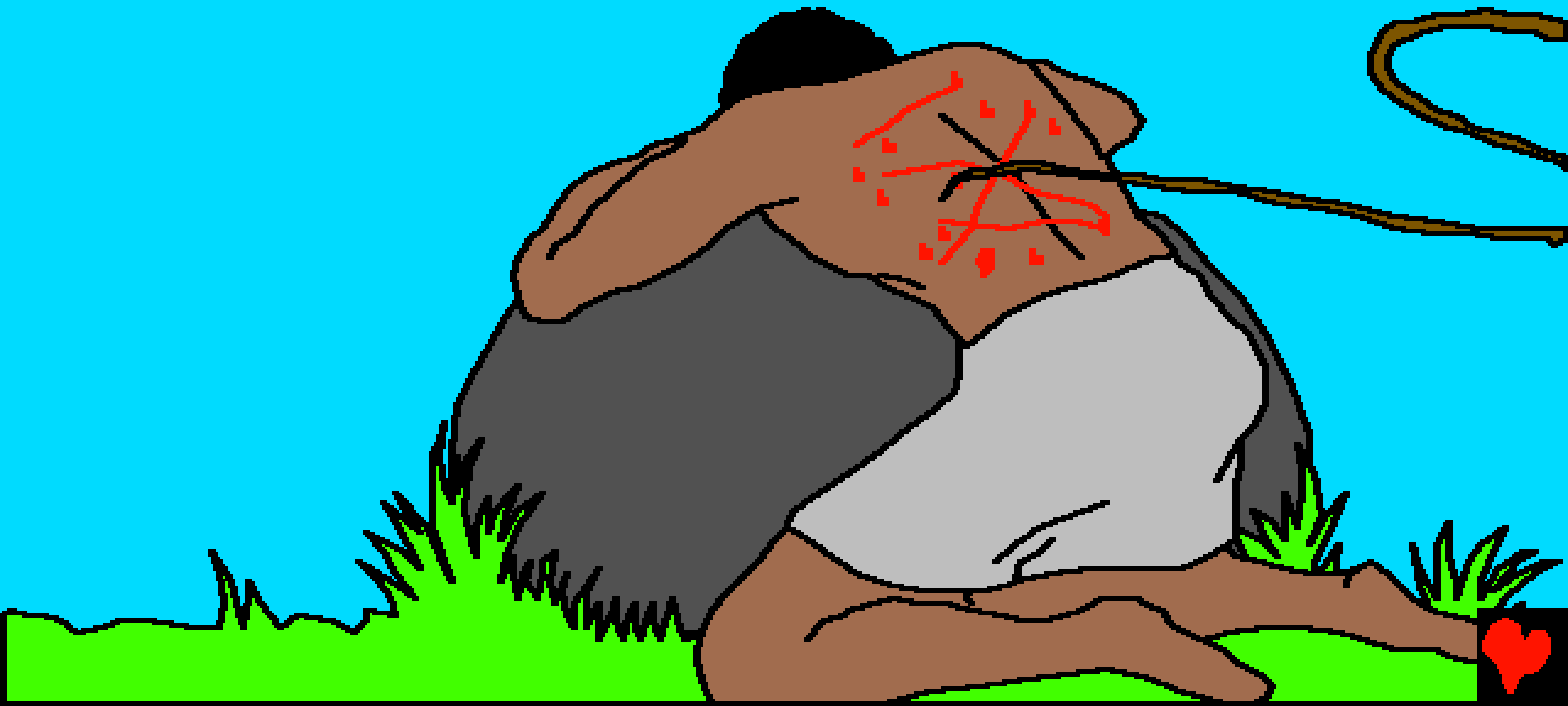


그런데 밤중에
주의 천사가
문을 열어 이들을
구해 주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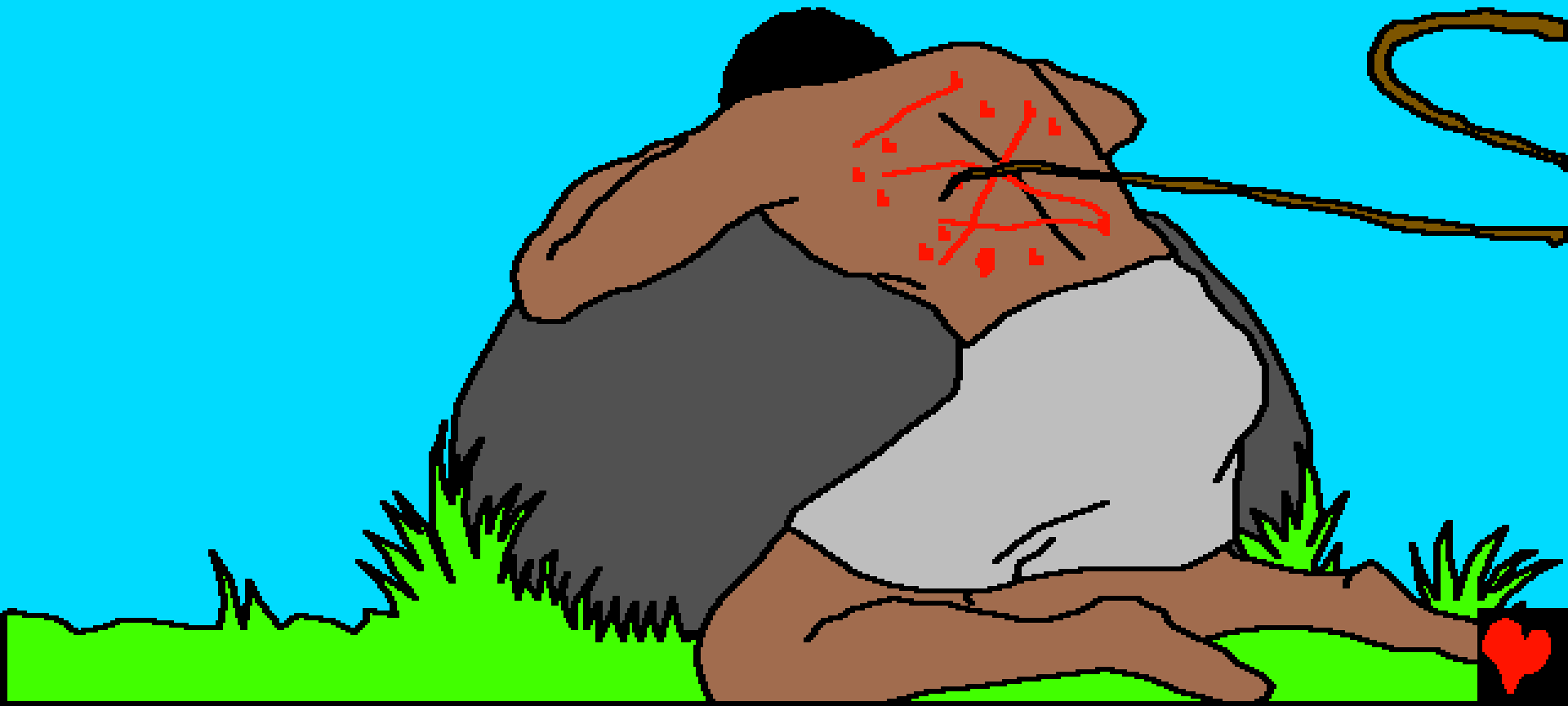
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
다시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감옥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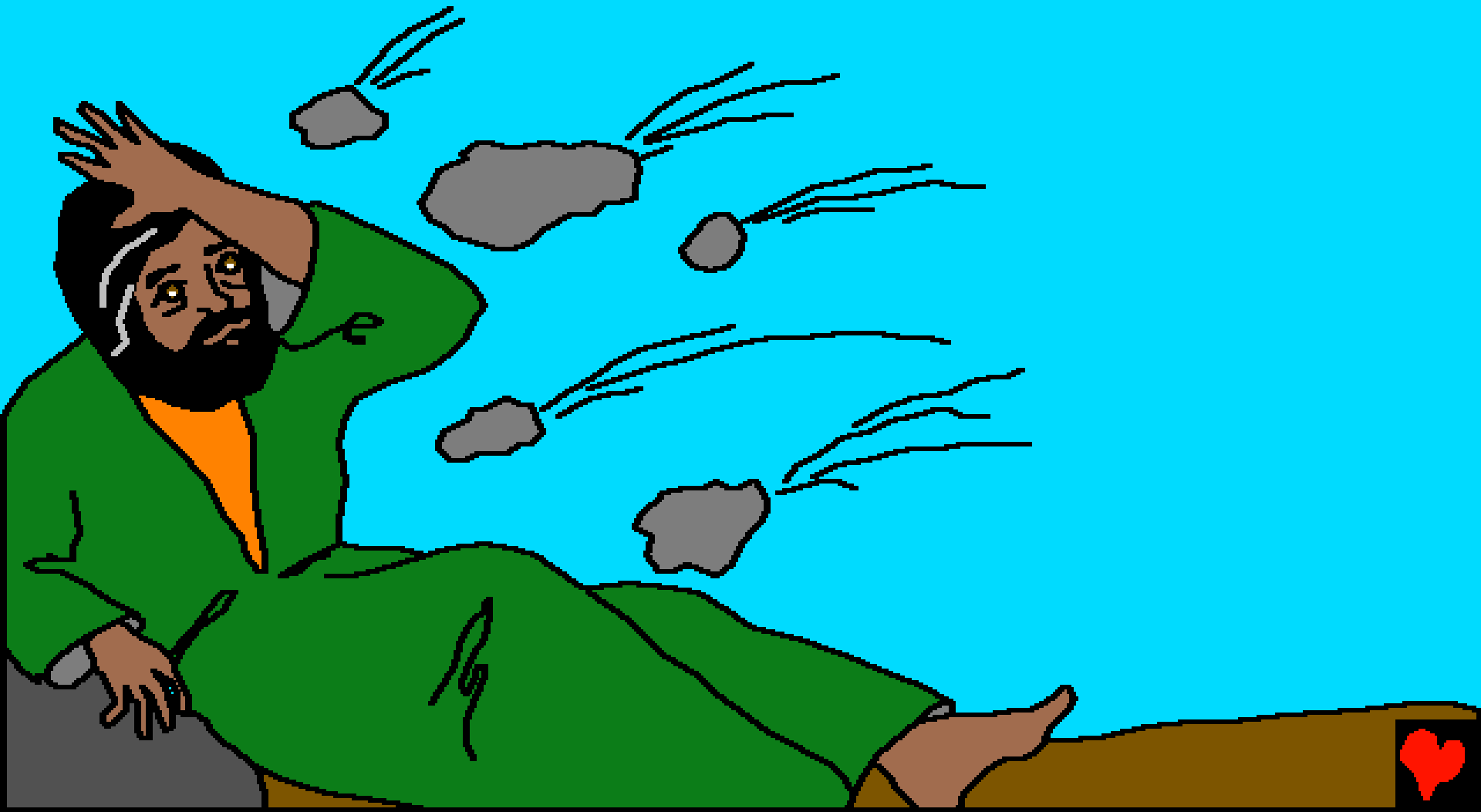
대제사장은 결국 사도들을 붙잡아 꾸짖기 시작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말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대답하었어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은 화가
치솟아서 그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대신 채찍질한 후 놓아
주었어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였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테반이 붙잡혔어요. 성령님이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요. 한 무리가 힘을 합하여 거짓말로 스테반을 모함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테반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지요.



그는 죽기 전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를 돌로
치는 동안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어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를 죽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지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또 다른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스테반의 죽음을 도운 사울이라는 청년은 모든 신자들을 모조리 찾아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집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오직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요.



반대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흠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주하시며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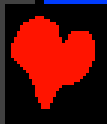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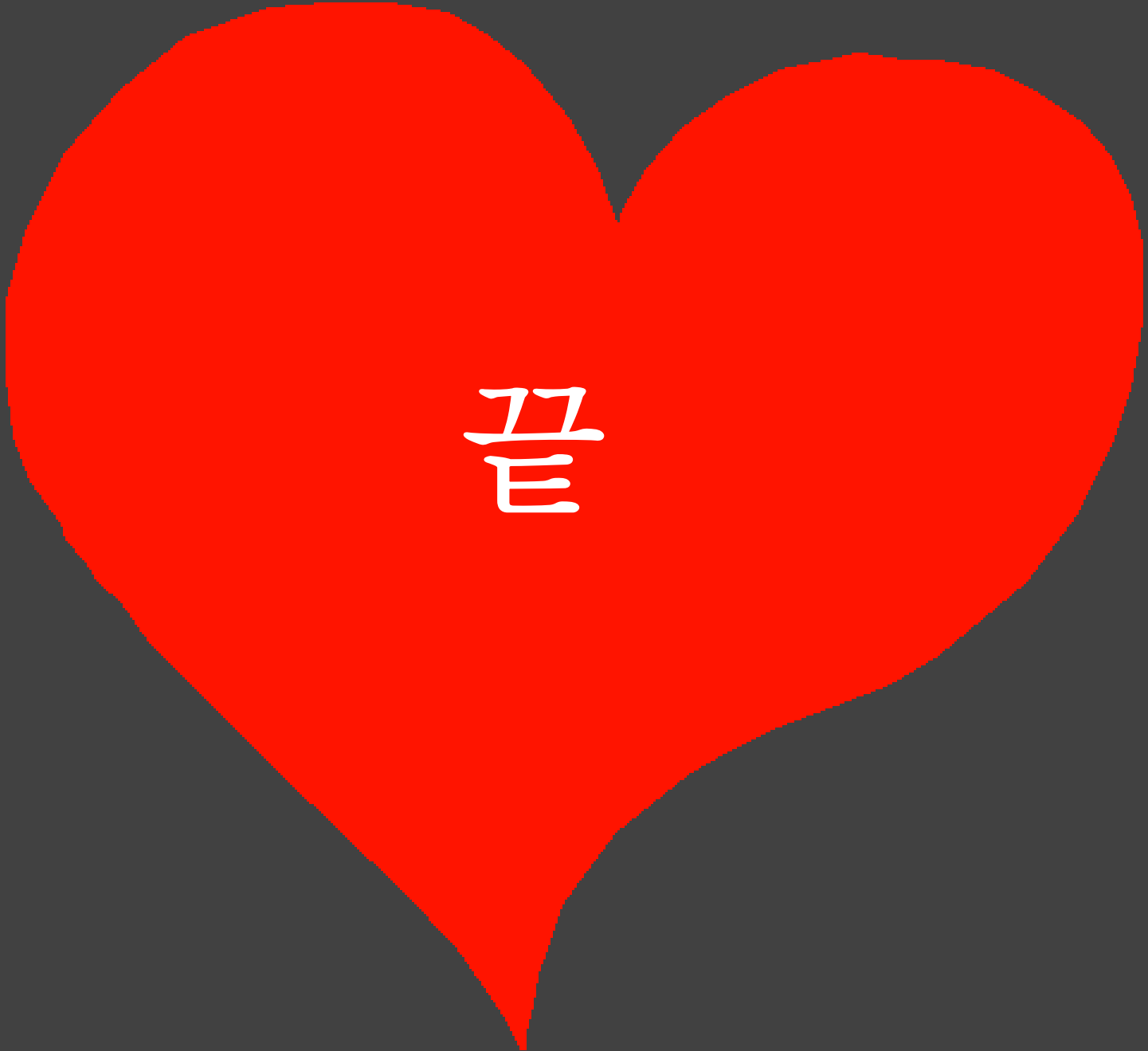
핍박당하는 교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7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